

보도시점 2026. 6. 25.(목) 16:00 배포 2026. 6. 25.(목) 15:00

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, 우즈벡 투자산업통상부 장관 면담

- 스마트 바이오 클러스터 등 협력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첨단산업 등 협력 확대 모색 -
- 제1차 한-중앙아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9월까지 성과사업 집중 논의 -

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24일(수) 정부서울청사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(Laziz Kudratov)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. 쿠드라토프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한-중앙아 정상회의에 앞서 한-우즈벡 간 경제협력 확대와 실질적 협력사업 성과 발굴을 위해 방한하였다.

< 구윤철 부총리-우즈벡 투자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개요 >

- 일시·장소 : '26.6.24(수) 17:30~18:30, 정부서울청사
- 참석자 : (한 국)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,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등
(우즈벡) 라지즈 쿠드라토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,
쇼흐루흐 굴라모프 투자산업통상부 차관 등

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AI·디지털, 핵심광물 및 공급망, 에너지, 대규모 인프라 등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. 특히 양측은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우즈베키스탄 내 스마트 바이오 클러스터,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더불어 바이오·의료 협력, 공항 배후단지 개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.

아울러,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핵심광물 수요가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내 다양한 전략광물을 활용한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였다.

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“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전략적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”고 언급하며, “우즈베키스탄 현지에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우즈베크 정부가 기업 애로 해소, 투자 인센티브 제공, 산업인프라 구축 등 투자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이에 쿠드라토프 장관도 “한국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환영하며, 양측 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해 양 부처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, 우즈베크 내 첨단산업, 교통·물류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”고 화답하였다.

양측은 제1차 한-중앙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(Turning point)가 되도록, 지난 5월 구 부총리의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예방 및 이번 면담에 이어 ‘EDCF 정책협의회’ 등을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대외경제국 경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	구교은 (044-215-7740)
		담당자	사무관	황인환 (inhwan89@korea.kr)

